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인 2/3, 건강보험개혁안에 우려 표명

□ 지난 30일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은 건강보험개혁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/3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관련비용 증가 및 보건부문에 대한 정부 역할의 지나친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미국 일간지 US Today와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번 건강보험개혁안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개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현재 가족들이 받고 있는 보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.
-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블랜든(Robert Blendon)교수는 건강보험개혁안의 지지자들이 주요 개혁안의 이행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이득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.
-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계속적으로 법안의 철회를 주장할 것이며 11월로 예정된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의원들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됨.
- 오바마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비용 상승과 같은 우려들을 인정하면서, 이번 법안이 미국 건강보험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발이며 법안 이행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힘.

□ 한편 건강보험 업계는 법안의 세칙 등이 작업 중이긴 않지만 이번 법안의 각 세부사항들이 업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힘.

- 건강보험회사들은 상품안내서, 보험증권 및 IT 시스템 등을 정비해야 하며, 고용주들의 경우에도 종업원의 복지 관련 사항을 업데이트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적·기술적 업무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 건강보험회사들이 법안의 허점을 이용하여,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을 피해가려할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, 현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미비점까지 고려할 시점은 아니라고 밝힘.

(US Today, AHIP, 3/30)